

다산포럼



박종섭 전 백제여상 교장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를 내내 내리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김광섭 ‘저녁에’ 전문)

김환기 화백에게 영감을 준 김광섭의 ‘저녁에’

를 바라는 거저필반(去者必返)을 노래하고 있다. ‘저녁에’의 시간적 배경은 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생의 황혼기나 임종을 앞둔 짧은 만남처럼 운명의 헤어짐에서 오는 고독과 성찰의 시간이다. 이산(怡山) 김광섭 시인은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뉴욕에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서구의 논리성을 결합해 민족의 정체성을 추상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키는 8년 후 배수화(梅話) 김환기 화백의 얼굴을 떠올린다. 얼마나 그립고 두터운 우정이었으면 이처럼 아름다운 시어들이 별처럼 돌아났을까? 이산은 이를 형상화한 ‘저녁에’를 ‘월간중앙’ 제20호(1969년, 11월 호)에 발표한 뒤 수화에게 보낸다.

속의 구상, 구상 속의 추상, 반추상 등으로 문화가 다른 미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에 전념한다. 유년 시절 고향 안좌도의 바닷가에 밀물 같은 그리움이 차오르면 붓을 사뿐히 눌러 찍어 옆으로 번지는 눈물이 된 얼 굴은 화가·수필가·비평가로 활동한 9년 선배 근원(近園) 김용준을 회상하게 한다. 근원은 해방 후 수화와 함께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화에서 일본 색채를 제거하고 민족 예술의 정체성을 표현한 수묵색채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러던 중 미군정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교수직을 사퇴한 뒤 성북동의 집 노시산방(老柿山房)을 수화에게 넘겨 준다. 이후 한국전쟁 중 월북해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북한의 미술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다. 수화는 인성과 공감으로 친화력이 두터웠던 근원이 월북한 후 정신적 공허감의 빈자리를 이산과의 만남으로 대신하였다. 이산은 일본 유학 후 중등학교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지냈다. 1961년 성북동에서 이웃사촌이 된 수화와 교감을 나누게 된다. ‘저녁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인간성 상실로 전이된다는 경고를 담은 ‘성북동 비둘기’와 함께 고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국민의 시가 되었다. 가수 유심초에 의해 가요로 불려지면서 크게 대중화됐다.

춘천 특특



김윤아 동신대 간호학과 4학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답답한 마스크에서 벗어내고 싶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싶고, 아름다운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한결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시간이다. 요즘 나의 관심사는 내 삶에서 행복을 더 즐기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강연도 찾아 듣고, 책도 읽으며,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우고 있다. 행복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강연 장면과 책의 구절이 있다. 그 하나는 유튜브에서 들게 된 경명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행복의 척도가 달라진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현대 사회의 행복의 기준은 원래 물질적인 갈망과 과시를 하며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보여 주며 인정받아 행복을 얻는 ‘원하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다’(want)라는 사람의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기존의 비교 순위와 과사·갈망에서 오는 행복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나를 위한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고민하는 ‘좋아하는’(like)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는 법륜스님의 책에 있는 행복에 관한 구절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소유의 진정한 삶을 이해할 때 보다 흥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흥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한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것은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비슷하다. 물질적인 행복과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진정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것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 보니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의 행동과 생각이 변했던 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주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행복은 목표가 아닌 도구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가 행복감을 느낌으로써 현재가 즐겁고 다음날이 기대된다. 오늘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된다.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 속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소소한 삶의 기쁨과 순수한 감정이 있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 그것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기고 싶다. 또한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워 낼 줄 알아야 사람답게 살아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꽉 찬 마음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없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야겠다. 내 마음속 불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하나씩 비워내 본다.

기고

‘설마’의 현대사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사람들이 ‘에이- 설마’라는 말을 쓸 때가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얘기로 들을 때 많이 쓴다. 문제는 이 ‘설마’의 사연이 거짓이 아닌 사실(事實·fact)이라는 점이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으려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설마’가 명백한 사실인 경우가 많고, 그 사실이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알려진 사례가 많다. 그래서 ‘설마’의 현대사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한국전쟁의 비극을 잘 그린 영화 중에 ‘고지전’이 있다. 이 영화의 끝 무렵에 이런 장면이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부대원들이 개울가에서 씻고 있던 도중 북한군과 만난다. 그러나 이미 협정 체결 소식을 들은 남북의 병사들은 잠시 긴장했으나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않고 손을 흔들며 헤어진다. 부대에 돌아온 부대원들에게 다시 고지 점령의 명령이 내려지고, 결국 영화는 한 명의 주인공만 남고 모두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진짜 저랬어? 왜 저런 미친 짓을?”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물음에

지 이유도 모른 채 처뻐졌다. 그나마 군법회의에 기소된 것은 나은 편이다. 문제는 군경에 의해 즉결심판된 주민들이다. 해마다 봄이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물들고 가을이면 그 열매로 붉게 물들이는 곳이 지리산 자락의 구례 산동면이다. 산수유와 온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산동에는 ‘산동애가’라는 노래가 전해진다. 학살의 피해를 입은 집안에서 남아 있던 막내 오라비를 대신해 죽어간 열아홉 백순례의 슬픈 사연을 담은 노래가 ‘산동애가’다. 이 노래의 사연을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겠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이 사연은 한 가족이 아닌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통의 사연이다. 그보다 더한 ‘설마’의 얘기가 넘치도록 많이 전해진다. 최근 ‘설마’의 현대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보다 나은 내일로 나가기 위해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4·3사건과 진실위원회는 연장되거나 두 번째 시도이지만, 그 외 다른 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설마’의 현대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피을 읊을 삼키며 그 ‘설마’의 사연을 가슴에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발 위원회의 활동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기회를 놓친다고 ‘설마’의 현대사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며, 묵혀 둔 ‘역사의 빛’은 언젠가는 더 많은 비유를 요구하며 되살아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역사가 주는 경고이다.

社說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들 귀국 지원 절실하다

전란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광주 지역 공동체의 지원으로 국내에 입국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31명은 광주 고려인마을 측의 지원을 받아 모레부터 차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제3국으로 탈출한 이들이다. 고려인마을 측은 이들이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지로 탈출한 뒤 항공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자 도움을 진행해 집단 입국을 성사시켰다. 고려인마을 측은 일부 고려인 동포의 탈출을 도운 적은 있으나 단체 지원은 처음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뒤 1956년 거주지 제한이 철폐되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들이다. 어렵게 터전을 잡은 이들이 전장으로 또다시 타국을 전전하는 사정이

딱하기만 하다. 더구나 탈출자들에 따르면 전쟁 상황에서 여권이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와 입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항공료는 차차하고도 국적이 없어 발이 묶인 동포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인마을 측에서도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260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친인척은 물론 일부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다. 당국 집계로는 1만 3000여 명이 달하는 고려인 동포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광주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광주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부와 광주시는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안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잦은 터널 안전 관리 강화해야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여덟 건에 그쳤던 광주 지역 터널 내 교통사고는 2020년 17건으로 5년 새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7354건→7718건) 증가율 4.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전남 지역도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9504건에서 9816건으로 3.3% 증가한 데 비해 터널 내 교통사고는 31건에서 37건으로 19.4%나 늘었다. 특히 광주 동구 지산터널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터널 상위 30곳 중 16위에 켜졌다. 2016년부터 5년간 지산터널에서는 17건의 교통사고로 54명이 다쳤다. 대형인 것은 전국의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27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48.1% 증가했지만 광주 지역에선 2016년 한 명이 숨진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

은 같은 기간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29곳, 전남에는 294곳의 터널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터널 내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3.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특히 차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특성상 서로 맞부딪치는 충돌 사고보다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많다. 그만큼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운전자들은 터널에 들어설 때 전조등을 켜고, 감속 운전을 하며, 시야를 방해하는 선글라스는 벗고, 추돌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터널 내 조명 및 시선 유도 시설, 노면포장 등 도로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강화로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44)은 “내게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해외 망명 제의를 거부하며 결사 항전을 선언, 대러 항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는 군용 티셔츠 차림으로 한 달 동안 69개의 대국민 영상, 그리고 10여 차례 해외 화상 연설 등을 통해 국민적 애국심 결집은 물론 전 세계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우크라이나의 ‘찰리 채플린’으로 저평 가됐던 그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57)는 직접 소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그는 부패 혐의를 받아 풀란드로 망명했으나 러시아 무력 침공 소식이 국내로 돌아와 방위군에 합류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힘을 합쳐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벌 출신의 그가 재임 시절 추진한 무기 현대화 등 각종 국방

정책들도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 위기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의 용기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물론 세계사의 흐름도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대확산에 사회는 혼란스럽고 민생 경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안보 환경도 심상치 않다. 국제 정세는 미·EU와 중·러 중심의 신냉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가·고물가·고환율로 국제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에 6월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보고 정치인의 리더십은 위기에 빛을 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경·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 사업 국 220-0541
정·지 부 220-0632 예·향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4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사·회 부 220-0652 체·육 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 본 부 220-0642 디·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